

고대 相學 이론의 형성과 《논형》 <骨相>편 분석

주미강·김계성*

<목 차>

1. 머리말
2. 고대 相人術의 연원
3. 현대 상학이론의 형성
4. 《論衡》 <骨相>편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고대에 천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인간은 하늘에 권위를 부여하고 제를 올렸으며 중요한 행사는 하늘의 뜻을 물었다. 거북 껍질이나 동물의 견갑골(肩胛骨)을 불로 지져 뒤쪽에 나타난 조짐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방식이 그것이다. 점을 친 갑골에는 占의 내용을 문자로 새겼는데 이것이 한자가 생긴 유래이다. 즉 하늘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기록했던 문자인 만큼 문화를 기록하는 수단이었다.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묻던 神 중심인 시기에는 인간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국가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 이후 天의 主宰性은 노자나 공자 등에 의해 인간의 主體性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人文의인 사고는 점차 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인간은 문화가 발생하면서부터 거대한 자연의 힘에 순응하기 위해

* 주미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제1저자), 선임연구원 / 김계성: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공동저자).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로부터 고대 문화현상인 神祕文化가 인문정신보다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지만, 유교나 도교 등 중국의 대표적 문화와 달리 주류에서 소외되었던 것은 고대의 신권 정치와 인문정신을 확보한 후의 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비문화 즉 術數文化는 占으로부터 발달하여 相人術과 風水 및 易術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상인술은 고대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자체로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으며, 春秋 중기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깊은 데도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 민중 속에 깊이 침투되어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사기》에서는 陰陽家を 六家の 분류 중 첫 번째에 두고 있으며¹⁾ 후한 때 《漢書》²⁾에서도 서적을 분류할 때 음양가를 유가와 도가의 다음으로 분류하였고, 명나라 때까지도 그 지위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³⁾으로 보인다.

한대에 동중서가 ‘파출백가, 독존유술(罷黜百家, 獨尊儒術)’을 제창한 이후 유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유학의 영역을 人에서 天으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陰陽五行說을 접목시켰다. 이후 음양오행과 관련된 많은 서적이 緯書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송대의 性理學이 주류를 이룬 이후에는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후대에 비주류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음양오행과 관련된 相人術은 비주류 문화임에도 고대의 정치와 문화에 대하여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후의 시대별 생활상과 사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술수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고대 술수문화의 활발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술수문화 중에서 고대의 相人術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초로 이론을 완성시킨 王充의 <骨相>편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史記》 <列傳>, 太史公自序, “夫陰陽儒墨名法道德, 此務爲治者也.”

2) 《漢書》 <藝文志>, “儒家者流, 蓋出於司徒之官, …… 道家者流, 蓋出於史, …… 陰陽家者流, 蓋出於羲和之官, …… 法家者流, …… 名家者流, …… 墨家者流, ……”

3) 吳承恩, 《西遊記》 <悟徹菩提眞妙理 斷魔歸本合元神>, “祖師道, 流字門中, 乃是儒家釋家道家陰陽家墨家醫家, 或看經, 或念佛, 並朝眞降聖之類.”; 비록 佛家와 관련된 소절이지만, 학파의 분류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한다면, 특징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觀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나 재수 따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신체의 특징 예컨대 얼굴의 모양, 骨格, 氣色, 音聲 등을 살펴 그 사람의 길흉화복과 빈천수요를 추측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상은 인상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相人術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선행논문을 검토한 결과, 중국과 대만에서는 汝企和·李詠達·林瀟雨·趙佳蘭 등 다수의 학자가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인술을 비판한 순자의 도덕실천의 근거가 용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人爲의 積習을 통하여 도덕적인 군자가 되는 것이라는 김철운의 논문과,⁴⁾ 도교의 수련과 상학을 연계시켜 精·氣·神 및 水火升降 등을 다룬 윤훈근의 논문⁵⁾ 및 고대 相人術의 연원과 사례 및 순자의 상인술 비판에 대하여 분석한 주미강·윤무학의 논문 등이 있다.⁶⁾

본고에서는 술수문화 중에서 고대의 상인술에 대한 분위기와 한대에 상인술의 이론이 시작된 연원으로부터 相學의 종조로 여겨지는 《논형》 <골상>편까지를 연구해 볼 것이다.

2. 고대 相人術의 연원

고대에는 천지자연의 거대한 힘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命에 대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때의 명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天命이었다. 이는 점을 칠 수 있는 주체가 일반 민중이 아니고 왕이었던 것과 비슷하다.

4) 김철운, <荀子の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제138집, 2015.

5) 윤훈근, <상학의 도교수련적 접근>,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6) 주미강·윤무학, <순자의 상인술 비판과 사례분석>, 《양명학》 제47집, 2017.

天은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주재하므로 지고무상한 것이라고 보았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은 모두 천명으로부터 결정된다고 여겼다. 특히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오(壽夭)를 상제가 결정하므로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天命에 따라야지 저항해서는 안 되며, 백성은 天子의 명을 따라야지 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 후 서주 말년에 민중들의 폭동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백성이 천자를 침범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깨지게 되었다. 춘추전국시기에 이르면 禮樂이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서 각국의 제후들이 기회를 틈타 일어나니, 周나라의 천자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아예 상실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경제·정치·사회분야 등에서 모두 근본적인 개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運命에 대한 사고를 시작하였고, 혼란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기를 희망하였으니 이로써 百家爭鳴의 국면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백가의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혼란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움직임 즉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려는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相에 대한 관념이 조성됨에 따라 상인술 또한 발생되었으며 점차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고대에는 저항할 수 없는 대자연의 위력을 대하면서 上帝가 命을 결정해 준다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운명은 모두 상제로부터 정해지고 성인(聖人)이 성인 되는 근거도 상제가 정해준 것이며, 이로부터 “성인은 특별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생김에 따라 相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간단한 신체적 특징만으로 그 사람을 평하고 있다. 전국시기의 《竹書紀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王母가 이르기를, 握登이 큰 무지개를 보고 감응하여 요허(姚墟)에서 舜을 낳았는데 눈동자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름이 重華였고 용안에 입이 크고 얼굴은 검었으며 키는 6척1촌이었다.……석뉴(石紐)에서 禹를 낳았는데 호랑이 코에 입이 크고 두 귀는 구멍이 세 개였으며……, (季歷의 부인은) 돼지우리에서 昌을 낳

아서 周文王이 되었는데 용안에 호랑이 어깨를 가졌으며 키는 10척이었고 가슴에는 네 개의 젖꼭지가 있었다.⁷⁾

선진시기의 고전 중에는 이처럼 신체적 특징만을 나열하는 현상이 보이지만, 성인들의 골상은 일반 백성과 다르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신체적 특징을 참고로 하고 얼굴을 분석하여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을 ‘相人’ 또는 ‘相人術’이라고 한다. 즉 ‘상인’이란 관상의 다른 이름이다.

‘相’은 《說文解字》에 ‘자세히 살피다(省視)’의 의미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인술이 태동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명사 또는 동사의 형태로 쓰기 시작했다. ‘相人’은 사람을 눈여겨 관찰한다는 뜻이고 ‘相狗’는 개를 감정한다는 뜻이며 ‘相馬’는 말을 감정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살피는 ‘상인’은 ‘相人術’ 또는 ‘相術’이라고도 하는데, 상술은 동물을 포함하는 통칭적인 용어로도 쓰인다. 상술에 관한 기록은 《莊子》 <雜篇>에 개를 감정한다는 ‘相狗’와 말을 감정한다는 ‘相馬’가 처음 보이고⁸⁾ ‘相人’이라는 용어는 《左傳》 <文公元年>에 처음 보인다. 또한 ‘相術’(相人術)이라는 용어는 《三國志》에 처음 보인다.¹⁰⁾ 여기서 말한 ‘상술’은 ‘상인’을 가리킨다. “삼국시기 위나라 때를 경계로 하여 이전에는 相術 혹은 相人術이라고 명명하였으나, 이후 시대 변천에 따라서 상인(술)과 상술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으며 오늘날 학계의 연구에서는 상인술로써 상인의 내용을 개괄하고 있다.”¹¹⁾ 특히 王充은 이 相人에 대해, 사람은 별기운을 받아 태어나므로 신체에 그 특징이 드러난다는 命定論과 연

7) 《竹書紀年》古今逸史本 卷1, “母曰, 握登見大虹意感, 而生舜於姚墟, 目重瞳子, 故名重華, 龍顏, 大口, 黑色, 身長六尺一寸, ……生禹於石紐, 虎鼻, 大口, 兩耳參鏤, ……於豕牢而生昌是爲周文王, 龍顏虎肩, 身長十尺, 胸有四乳.”

8) 《莊子》 <雜篇>, 徐無鬼, “少焉, 徐無鬼曰, ‘嘗語君, 吾相狗也. ……吾相狗, 又不若吾相馬也.’”

9) 《左傳》 <文公>, 文公元年, “元年春, 王使內史叔服來會葬, 公孫敖聞其能相人也, 見其二子焉.”

10) 《三國志》 <魏書> 29, 朱建平傳, “朱建平, 沛國人也. 善相術, 於閭巷之間, 效驗非一.”

11) 趙佳蘭, <論《史記》的相人情節及司馬遷的相術思想>, 渭南師範學院學報 第30卷 第19期, 2015, 30쪽.

계시켜 ‘骨相’이라고 명명한다.¹²⁾

상인술을 언급한 자료는 적지 않다. “《詩經》·《書經》·《論語》·《孟子》·《荀子》 등의 선진 문헌을 제외하고도, 《史記》·《漢書》·《論衡》·《潛夫論》·《後漢書》 등 이후 서적에만 대략 90회 이상이 언급되고 있다.”¹³⁾ 가장 이른 시대의 상인술에 관한 기록은 《左傳》에 보인다.

공손오(公孫敖)는 (叔服이) 相인에 능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의 두 아들을 보였더니 숙복이 말했다. “穀은 당신을 봉양할 것이고 難은 당신을 장례지낼 것입니다. 곡은 아래턱이 풍부하므로 반드시 노나라에서 후손이 번창할 것입니다.”¹⁴⁾

魯나라 文公 원년이니 기원전 626년의 기록이다. 周나라 친자의 명으로 丙史였던 叔服이 노나라 희공(僖公)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을 때, 노나라 대부였던 공손오가 숙복이 상인술에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의 相을 보게 했다는 일화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노나라는 동쪽에 가까웠고 주나라는 중원에 있었으니 연접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춘추시기에 주 왕실이 나 여러 제후국에서 상인술이 유행하고 있었고 이미 상인술에 능한 관리가 있었으며 중심사회에서 널리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인술이 발전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관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전국시기에 쓰여진 《左傳》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약 200년 전의 소문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文公元年> 조에 이어지는 내용 또한 상인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볼 때¹⁵⁾ 상인술이 매우 성행했을 것이며 그 수준도 꽤 높았음을

12) 본고에서 언급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선진시기 문헌에 언급된 내용은 ‘相人(術)’로 통일하고, 《論衡》 <骨相>편을 다룰 때는 왕충이 명명한 ‘骨相’과 ‘骨法’을 그대로 사용하겠으며 때로 문장의 흐름에 필요할 때에는 ‘相學’ 또는 ‘觀相(術)’도 언급하고자 한다. 또 하나는 ‘命定論’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우리는 통념상 ‘定命論’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정명’이라는 용어는 제자백가의 ‘正名’과 발음상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命定論’으로 쓰이길 바라면서 본고에서도 ‘명정론’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13) 孟姣姣, <先秦兩漢相人文化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6-7쪽.

14) 《左傳》 <文公>, 文公元年, “公孫敖聞其能相人也, 見其二子焉, 叔服曰, 穀也食子, 難也收子, 穀也豐下, 必有後於魯國.”

알 수 있다. 이는 心身을 수양함으로써 인간의 내면까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 선진 儒家의 相人

고대의 중요한 인물인 공자와 순자의 사고로부터 그 시대의 환경에 따른 운명과 상인술에 대한 사고를 찾아보자. 공자가 상인술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외모를 관찰한 기록이 있다.

먼저 여러 고전에서 언급한 공자의 相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러 고전에 기록된 공통점으로 ‘성인은 특이한 상을 갖는다’는 특징이 관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史記》의 기록을 보면, 공자는 “나면서부터 머리 위가 우뚝 솟았으며……키가 9척 6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공자를 키다리라고 불릴 만큼 특이했다.”¹⁶⁾고 하였다. 《韓詩外傳》에는 중국역사상 저명한 관상가의 하나였던 고평자경(姑布子卿)이 본 공자의 상이 어땠는지¹⁷⁾를 표현하고 있다. 춘추시대에 활동했던 고평자경은 전국시대의 당거(唐擧)와 전한의 허부(許負)와 함께 상인술 초기의 전문 관상가로 여겨진다. 따라서 춘추시대 중기에 전문 관상가가 활동했다는 점에서 춘추 초기를 전후로 하여 상인술에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15) 《左傳》 <文公>, 文公元年, “……楚子將以商臣爲太子, 訪諸令尹子上, 子上曰, 君之齒未也, 而又多愛, 黜乃亂也, 楚國之舉, 在少者, 且是人也, 蜂目而豺聲, 忍人也, 不可立也.”: 결국은 아들인 商臣이 부친인 軍주를 제압하여 軍주가 스스로 자살하게 된다. 태자를 세울 때조차 승인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인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을 상당히 신뢰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장치 등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6) 《史記》 <世家>, 孔子世家, “魯襄公二十二年而孔子生, 生而首上圩頂, 故因名曰丘云, ……孔子長九尺有六寸, 人皆謂之長人 而異之.”; 공자의 상은 여러 곳에 ‘反羽(《論衡》 <骨相>), 反宇(《白虎通義》 <聖人>)’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17) 《韓詩外傳》 卷9, “子貢曰, ‘賜之師也, 所謂魯孔丘也.’ 姑布子卿曰, ‘是魯孔丘歟! 吾固聞之.’ 子貢曰, ‘賜之師何如?’ 姑布子卿曰, ‘得堯之額, 舜之目, 禹之頸, 皋陶之喙, 從前視之, 盎盎乎似有王者, 從後視之, 高肩弱脊, 此惟不及四聖者也.’”

이제 공자가 사람됨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자. 《韓非子》에 孔子가 사람을 판단하는 예가 실려 있다.

담대자우(澹臺子羽)는 군자다운 풍모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받아들였으나 오랫동안 함께 거하면서 행동이 외모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재여(宰予)의 말씨는 고상하고 세련되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받아들였으나 함께 거하면서 그의 지혜는 언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풍모만 보고 취했다가 자우에게 실망했고 언변만 믿고 취했다가 재여에게 실망했다.”¹⁸⁾

성인이라고 불리는 공자마저도 겉모습이나 말솜씨만 보고서 판단한 경우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앞에 인용한 것처럼 성인들은 아름다운 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이 말 모양이나 새주둥이 같다는가 귀가 땅에 닿는다는가 곱사등이었다는 데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고요(皐陶)의 새 주둥이처럼 흉해 보이는 상일지라도 훌륭한 재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자가 사람됨을 관찰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荀子は 相人術에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당시 세도가 혼란하여 망국의 어두운 군주들이 常理와 正道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巫俗을 믿었으며 유생들이 번거로운 예절에 구애되고, 게다가 莊周 등이 교활하고 많은 변설로 풍속을 어지럽혔다. 이러한 분위기에 미신으로 치부되던 天命論은 상인술과 결합하여 선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러한 상인술이 유행하는 상황에 대하여 순자는 특별히 《非相》편을 따로 써서 비판하였다.”

옛날에는 姑布子卿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양나라의 唐擧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

18) 《韓非子》 <顯學>, “澹臺子羽, 君子之容也, 仲尼幾而取之, 與處久而行不稱其貌. 宰予之辭, 雅而文也, 仲尼幾而取之, 與處而智不充其辯. 故孔子曰, ‘以容取人乎, 失之子羽, 以言取人乎, 失之宰予.’”

19) 林瀟雨, <荀子非相篇名及成篇時間研究>, 《赤峯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37期, 2016, 175쪽.

람의 형상과 안색을 감정하여 그 길흉과 재앙이나 상서로움을 안다고 하여 세속에서 칭송한다. …… 형상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은 학술을 이기지 못한다. 학술이 바르면 마음이 그에 따르게 되니 형상이 비록 못났더라도 心相이 선하면 군자가 될 수 있으며, 형상이 비록 훌륭하더라도 심상이 나쁘면 소인이 될 수밖에 없다.²⁰⁾

이 글은 <非相>편의 도입부로 요지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신체의 대소·장단·미추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의 외모에만 근거하여 길흉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상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은 학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는 의지 등의 심리상태를 결정할 수 없고 능력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²¹⁾ 또 순자가 ‘마음은 학술을 이기지 못한다’는 데에서의 학술은 순자의 주장인 ‘자신의 내부에 있는 반사회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非相>편에는 상인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만 보일 뿐 相人術에 대한 기록은 없다. 순자가 상인술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전국 말에 이르러서 상인술이 상당히 유행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상인에 대한 분위기는 사람을 속이는 등의 비정상적이며 비도덕적인 현상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기타 고전에 보이는 相人

선진시기의 상인술 사례에 관련된 기록은 위에서 언급한 《竹書紀年》, 《左傳》, 《韓非子》, 《史記》 이외에도 많은 예시가 있으며 주로 역사서 가운데서 많이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左傳》과 《史記》에 가장 많고 자세하

20) 《荀子》 <非相>, “古者有姑布子卿, 今之世梁有唐舉, 相人之形狀顏色, 而知其吉凶妖祥, 世俗稱之, ……形不勝心, 心不勝術, 術正而心順之, 則形相雖惡而心術善, 無害爲君子也. 形相雖善而心術惡, 無害爲小人也.”

21) 후대에 유소(劉劭)는 《人物志》에서 “사람들의 바탕을 살필 때는 반드시 평담한가를 먼저 본 뒤에 그의 총명함을 구했다(觀人察質, 必先察其平淡, 而後求其聰明).”고 하여 관상보다는 심상을 중시하고 있다.

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한 형상의 특징만을 기록한 고전은 제외하고 상인술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다음은 쑤나라 대부 叔向(?~B.C.528)의 아우인 叔魚가 태어났을 때의 일화인데, 위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특징에 비유하면서 상인술을 전개하고 있다.

叔魚가 태어나자 그 모친이 아이를 보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호랑이 눈에 돼지 주둥이와 술개의 어깨와 소의 배 형상이다. (재물로) 계곡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뇌물 때문에 죽을 것이다.”²²⁾

전국시기에 쓰인 《逸周書》에 쑤나라 대부인 사광(師曠)과 周景王(?~B.C.520)의 태자인 쑤의 대화에도 보인다. 사광이 태자에게 “당신의 음성이 맑지만 매끄럽지 못하고 당신의 얼굴색은 붉으면서도 흰데, 붉은 색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²³⁾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전국시기보다 앞선 춘추시기 후반기의 상인술이 이미 신체에 나타나는 형상을 넘어서 음성과 氣色만으로 특징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진시기에도 다양한 상인술의 내용이 보인다. 동물의 특징을 상인술에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기색과 음성만 듣고서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까지 다양한 예시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漢代 相學이론의 형성

전한 시기는 중국전통상학의 형성기이다. 이때 상인술이 민간에 유행하기

22) 《國語》 <晉語> 8, “叔魚生, 其母視之, 曰, 是虎目而豕喙, 鳶肩而牛腹, 谿壑可盈, 是不可饜也, 必以賄死.”

23) 《逸周書》 <太子晉解>, “師曠對曰, ‘汝聲清汗, 汝色赤白, 火色不壽, 這是從人的聲音和面色來斷定壽命的長短.’”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점차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발전되었다. 상인술이 한대에 흥성한 원인을 찾아보면 주로 사회적 면과 사상사적 흐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면은 정치와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한나라 개국황제인 유방에 대한 사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방은 원래 평민이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용맹을 앞세우고 책사의 도움을 받아 戰功을 세우면서 마침내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宗法이라는 전통적 제도의 풍습과 매우 상충되었기 때문에 天命皇帝說이 흔들렸다. 이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劉邦은 모친인 유온(劉媪)이 교룡(蛟龍)과 교합하여 태어났는데 교룡과 비슷한 특이한 相을 가지고 있었다. 《史記》 <本紀>에 “고조의 사람됨은 코가 높고 용안이었으며 수염이 아름다웠고 왼쪽 허벅지에 72개의 점이 있었다(隆準而龍顏, 美須髯, 左股有七十二黑子).”고 했다. 또 같은 篇에서 “유방의 장인인 呂公은 相人術을 좋아했는데 자신의 연회에 찾아온 평민인 유방을 상석에 앉도록 하면서 ‘그대의 상이 가장 좋으니 臣의 딸을 아내로 삼아달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新나라를 세운 왕망(王莽)의 기록이 나²⁴⁾ 후한 개국황제 劉秀에 관한 기록에서도²⁵⁾ 상인술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양한시기의 역사 기록을 보면 역사가들이 인물을 기록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인물의 신체 외모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나 개국황제에 한한 것이지 대를 잇는 황제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왕조 개창자나 특정 영웅을 신성시하기 위한 기이한 모습이나 신비스러운 탄생 등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기술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점차 사람들은 상인술로부터 심리적인 위안을 찾기 시작하였으

24) 《漢書》 <王莽傳上>, “莽所謂鴟目虎吻豺狼之聲者也, 故能食人, 亦當爲人所食.”

25) 《東觀漢記》 <朱祐>, “長安政亂, 公有日角之相.”; 《後漢書》 <列傳>, “朱景王杜馬劉傳 堅馬列傳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祐侍謙, 從容曰, ‘長安政亂, 公有日角之相, 此天命也.’”)

26) 李富祥, <王充論衡의 命理學思想新探>,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103쪽.

며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예측해보려고 하였다. 통치계급 내부에는 권세와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암투가 조성되었으니, 이에 무력한 사람들은 현실로부터 합리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거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환경과 세인들의 심리는 상인술로 하여금 한대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왕충의 <골상>편에 보인다.

丞相 黃次公이 젊었을 때 陽夏郡의 하급 관리였다. 하루는 관상가와 함께 길을 가던 중 17-18세의 여인을 보았는데 관상가가 “이 여인은 대부귀하며 封侯의 아내가 될 상을 지녔습니다.”라고 말하자 황차공이 수레를 멈추고 그 여인을 살펴보았다. 관상가가 “만약 이 부인이 부귀해지지 않는다면 占書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²⁷⁾

韓太傅가 대학생 때였다. 관상가에게 오십 전을 주면서 함께 들어온 대학생 중에서 누가 부귀해지는지 물어보았다. 관상가는 예관(倪寬)을 가리켰다. “저 학생이 부귀해져서三公의 지위에 오를 것이오.” 한생은 예를 갖추어 관상가를 돌려보낸 뒤 예관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고……훗날 예관의 지위가 어사대부에 이르자 州·郡의 보좌역으로 한생을 불러 임명했다.²⁸⁾

골상에 관한 많은 예 중 위의 두 인용문은 민간에서도 골상이 유행했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史記》에 등재될 정도의 비중이 있는 서한시대 인물인 黃次公과 韓太傅를 인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자 하였겠지만, 왕충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부귀빈천이 골상에 깃들어 있다’는 논리와는 배치되고 있다. 황패(黃霸)는丞相에까지, 한생은 太傅에 까지 올랐는데 만약 황패와 韓生이 부귀해질 골상을 타고났다면 굳이 관상가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27) 《論衡》 <骨相>, “丞相黃次公, 故爲陽夏游徼, 與善相者同車俱行, 見一婦人, 年十七八, 相者指之曰, ‘此婦人當大富貴, 爲封侯者夫人.’ 次公止車, 審視之. 相者曰, ‘今此婦人不富貴, 卜書不用也.’”; 이 내용은 《漢書》 <循吏傳>에도 언급되어 있다. “始霸少爲陽夏游徼, 與善相人者共載出, 見一婦人, 相者言 ‘此婦人當富貴, 不然, 相書不可用也.’”

28) 《論衡》 <骨相>, “韓太傅爲諸生時, 借相工五十錢, 與之俱入壁雍之中, 相壁雍弟子誰當貴者. 相工指倪寬曰, ‘彼生當貴, 秩至三公.’ 韓生謝遣相工, 通刺倪寬, 結膠漆之交, ……倪寬位至御史大夫, 州郡丞皆召請, 擢用舉在本朝, 遂至太傅.”

한 관상가가 그들에게는 부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것도 모순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대체적으로 제왕이나 통치계급에서 지위를 보전하거나 출세하기 위하여 상인술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활영역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대에는 상인술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침하며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것이며, 따라서 한대에 상인술이 왕성한 발전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상인술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파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論衡》 <骨相>편의 저자인 왕충이 미관말직에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례비를 지불하고 相을 본 예에서 상인술은 한대에 하나의 方術로서, 생계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術數行爲를 통하여 비용을 받는 예는 일찍이 《墨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녀는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善을 구하는 자는 적으므로 애써 사람에게 설명하더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사람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와 나가지 않고 앉아서 점을 치는 자 중 누가 곡식을 많이 받겠는가?”²⁹⁾라고 비유하는 내용에서 복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춘추시대 말기에 이미 점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상인술이 유행한 전국시기에도 상인술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시장이나 길가에서 점을 친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점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뿐이다.

다음의 기록에서 상인술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집단이 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司馬季主는 漢初(高祖~景帝)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사마계주는 楚나라 사람으로 장안의 東市에서 점을 쳤다.……사마계주가 한가롭게 앉아 있고, 서너 명의 제자가 모시고 있었다. 마침 천지의 道와 일월의 운행 및 음양 吉凶의 근본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³⁰⁾

29) 《墨子》 卷12, 公孟, “且有二生, 於此善筮, 一行爲人筮者, 一處而不出者, 行爲人筮者與處而不出者, 其精孰多?”

30) 《史記》 <列傳>, 日者列傳, “司馬季主者, 楚人也, 卜於長安東市.……司馬季主間坐, 弟子三四人侍, 方辯天地之道, 日月之運, 陰陽吉凶之本.”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대 초까지는 占術家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대에는 相學이 相人에 한정된 학문이 아니라 堪輿(堪輿)와 星相 등을 포함하는 心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장 높은 지식인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제왕의 학문(帝王學)이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한초에 서당식 강의 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한대에 相人術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 神 중심의 사회에서 巫와 史는 신과 인간을 잇는 역할이었다. 이들은 天文學을 연구하였는데, 노자와 공자 이래 사회가 神 중심에서 인간의 주체성으로 점차 변하면서 巫나 史가 민간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 시기가 춘추말 전국시대이다.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민간에서 술수의 경향이 싹트기 시작한다. 天人感應說 등의 영향으로, 철학이 인간학 중심에서 다시 神과 연계되기 시작한 한대에 術數學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후 술수학은 국가 위주보다는 오히려 민간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후한 시기에 황제가 빈(嬪)과 비(妃)를 선택할 때에도 상인술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³¹⁾ 《漢書》 <藝文志> 가운데에 ‘相人 24권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 상인술에 대한 저술이 넓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과 상학 이론이 전한시기에 이미 초보적으로나마 구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대는 相人術이 발전하는 분기점이자 상학 이론의 출발점이다. 한대 이전의 서적에서 상인술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많지만 이론에 대한 서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前漢 때부터 상인술이 민간으로 유입되어 급속히 확산된 점은 통치 계층의 중시와 함께 상학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분위기에 따라 한대인들의 상인술에 대한 의존성은 점차적으로

31) 《後漢書》 <紀>, 皇后紀上, “漢法常因八月筭人, 遣中大夫與掖庭丞及相工於洛陽鄉中, 閱視良家童女年十三以上二十已下姿色麗合相法者, 載還後宮, 擇視可否, 乃用登禦。”

높아갔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後漢 초에는 드디어 상학에 관한 기초 이론서라 할 만한 관상서가 출현하였다.

4. 《論衡》 <骨相>篇 분석

王充(A.D. 27~98년?)은 어려서 가난하여 책을 살 돈이 없었기에 장안의 서점을 돌면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남들보다 학문과 인품이 뛰어났으나 겨우 州·郡·縣의 참모 수준의 직위밖에 얻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물리치니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빈곤과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세상의 거짓되고 허황한 것들에 대한 비판을 글로 써서 84편에 이르는 방대한 《論衡》을 남겼다. 그중 <骨相>편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1) 왕충의 ‘골상’과 명정론

<골상>편은, 왕충이 제시한 命定論에 대한 증거를 신체에서 찾고자 하는 신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다. 왕충이 ‘骨相’이나 ‘骨法’이라고 한 것은 인체의 골격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며 모두 인체의 여러 부위를 의미하거나 ‘相人(術)’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골상>편의 도입부에서는 사람의 命은 알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命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命은 매우 알기 쉽다. 어떻게 아는가? 骨體를 이용한다. 人命은 하늘에서 부여받으니 곧 몸에 표징이 있다. 표징을 살핌으로써 命을 아는 것은 마치 말과 되를 살펴서 용량을 아는 것과 같다. 표징은 骨法을 말한다.³²⁾

32) 《論衡》 <骨相>, “人曰命難知. 命甚易知, 知之何用? 用之骨體. 人命稟於天, 則有表候於

명의 이치는 말이나 되를 살펴서 그 용량을 아는 것과 같은데 신체의 표징을 살펴서 命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쉽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상인술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지만, 왕충이 골상을 도구로 삼아 운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四諱>편에는 “아이는 元氣를 안고 태어난다. 원기는 천지의 정미한 기이다.……사람도 만물이며 아이도 만물이다(子含元氣而出. 元氣天地之精微也.……人物也, 子亦物也).”고 하였는데, 태어난 아이의相이 어름과 다르지 않음은 앞서 제시한 《國語》 <晉語>편의 叔魚에 대한 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命은 무엇인지, 어떻게 부여받는지를 살펴보자. <言毒>편에서는 “만물이 생겨날 때 모두 원기를 부여받는다(萬物之生, 皆稟元氣).”고 하였고, <無形>편에서는 “사람은 하늘에서 원기를 부여받을 때 각각 수오(壽夭)의 명을 받는다(人稟元氣於天, 各受壽夭之命).”고 하여, 氣가 세계의 근본을 구성한다는 元氣論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명까지 부여받는다라는 명정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진다.

모두 元氣를 부여받아서 혹은 사람이 되고 혹은 금수가 된다. 아울러 사람이 되면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다.³³⁾

이상은 氣一元論者인 왕충의 命定論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다. “왕충은 비록 氣가 우주구성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는 다만 순수한 물질일 뿐이며 결코 어떠한 형이상학인 성질을 갖추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기로 말미암아 구성된 天은 또한 단지 물질일 뿐이며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天道自然論를 주장한다.”³⁴⁾

또한 개인의 부귀빈천도 모두에게 부여된 命으로부터 결정된다는 명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왕충이 처음 제시한 것은 아니다. 韓信에 대한 《史

體. 察表候以知命, 猶察斗斛以知容矣. 表候者, 骨法之謂也.”

33) 《論衡》 <幸偶>, “俱稟元氣, 或獨爲人, 或爲禽獸. 並爲人, 或貴或賤, 或貧或富.”

34) 李詠達, <王充與王府的天人關係論解釋>, 《宗教哲學》 第74期, 2015, 159쪽.

記》의 기록에서 秦漢代 또는 그 이전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귀해지느냐 비천해지느냐 하는 것은 骨相에 달려 있고, 격정거리가 생기느냐 기쁜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은 얼굴모양과 얼굴빛에 달려 있으며, 성공과 실패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³⁵⁾

동시에 그는 부귀빈천뿐 아니라 사람의 성격도 또한 골상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부귀빈천이 骨體에 있을 뿐 아니라 품행의 청탁에도 또한 법의 이치가 있다. 귀천빈부는 命이고, 품행의 청탁은 性이다. 命에 骨法이 있을 뿐만 아니라 性에도 骨法이 있다. 오직 命에 相을 밝힘이 있는 것만 알지 性에 骨法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명의 표징만 보고 성의 부험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³⁶⁾

骨法은 골체뿐만 아니라 성과 명에도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귀빈천과 품행까지도 사람의 골상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말하자면 性과 命이 신체와 연계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³⁷⁾라고 하였다. 性品과 骨相을 연계하는 예는 앞의 叔魚에 대한 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사가 《國語》에 실려 있는 것으로³⁸⁾ 보아 <骨相>편에서 주장하는 이론과 관련된 많은 자료가 춘추시기에도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진시기 문헌 중 상인술과 관련이 있는 논술은 《荀子》 <非相>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유추하면, 이전부터 전해오던 이러한 내용에서

35) 《史記》 <列傳>, 淮陰侯列傳, “貴賤在於骨法, 憂喜在於容色, 成敗在於決斷, 以此參之, 萬不失一.”

36) 《論衡》 <骨相>, “非徒富貴賤有骨體也, 而操行清濁亦有法理. 貴賤貧富, 命也. 操行清濁, 性也. 非徒命有骨法, 性亦有骨法. 唯知命有明相, 莫知性有骨法, 此見命之表證, 不見性之符驗也.”

37) 《論衡》 <骨相>, “由此言之, 性命繫於形体, 明矣.”

38) 《國語》 <晉語> 8, “叔魚生, 其母視之, 曰, ‘是虎目而豕喙, 鳶肩而牛腹, 谿壑可盈, 是不可鑿也, 必以賄死.’ 遂不視. 楊食我生, 叔向之母聞之, 往, 及堂, 聞其號也, 乃還, 曰, ‘其聲, 豺狼之聲, 終滅羊舌氏之宗者, 必是子也?’”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왕충이 자연스럽게 <骨相>편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왕충의 '골상'에 대한 내용은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적으로 확고한 명정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두 사람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까지 확대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동일한 명을 받은 사람의 氣는 같다. 기가 같으면 天性和 形체와 뼈대와 용모도 비슷하다. 받은 기와 명이 달라도 서로 결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귀한 명을 지닌 남자는 부귀한 명을 지닌 여자를 처로 맞아야 한다. 여자 또한 마찬가지다. 골상이 비슷하지 않은데도 결혼하면 즉시 죽거나 결혼도 하기 전에 죽는 재앙이 닥친다.³⁹⁾

부귀한 집안에서 骨法和 形체가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지거나 죽어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없다.⁴⁰⁾

남녀 두 사람의 骨相의 차이가 크다면, 예컨대 두터운 기를 받아 훌륭한 골상을 가진 사람과 얇은 기를 받은 천한 골상을 가진 두 남녀가 혼인을 한다면 그들이 일단 부부가 되더라도 그 중에 命이 천한 사람은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汝企和는 “이것은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한 부부의 두 相이 고르지 않은 것을 전체 집안 중에 일부 가족이 骨法에 따른 형체가 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문장에서의 즉각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헤어지거나 죽는다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다. 즉 사망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확장은 즉각 죽는다는 것에 비해서는 분명 약간은 완화된 것이다.”⁴¹⁾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은 후자의 글을 쓴 시기가 전자보다 늦은 상황을 반영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39) 《論衡》 <骨相>, “類同氣鈞, 性體法相固自相似. 異氣殊類, 亦兩相遇. 富貴之男娶得富貴之妻, 女亦得富貴之男. 夫二相不鈞而相遇, 則有立死, 若未相適, 有豫亡之禍也.”

40) 《論衡》 <骨相>, “夫舉家皆富貴之命, 然後乃任富貴之事. 骨法形體有不應者, 則必別離死亡, 不得久享介福.”

41) 汝企和, <《論衡·骨相篇》與《潛夫論·相列》解釋>,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報)》 第207期, 2008, 137쪽.

<骨相> 한 편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기술했다고 볼 수 있겠다.

<齊世>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여받은 기가 같다면 부여받은 本性도 비슷해야 하며, 받은 본성이 비슷하다면 形體도 비슷해야 한다. 형체가 비슷하면 얼굴의 美醜도 비슷해야 하고, 얼굴의 미추가 비슷하면 壽命도 비슷해야 한다.⁴²⁾

상고시대와 당시시대를 비교한 글인데, 부여받은 기가 같다면 본성·형체·미추·수명 등이 모두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

성인과 현인은 지혜는 매우 뛰어나지만 골상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고결한 성조(聖鳥)와 성수(聖獸)도 인선(仁善)과 청렴함이 있는데 형체는 보통의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세상에는, 부귀하더라도 성인이 아닌 사람도 있으나, 신체에 부귀한 골상이 드러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현이라는 증명은 아니다.⁴³⁾

여기에서는 성인이나 현인의 골상은 백성의 골상과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더구나 골상이 훌륭하더라도 부귀만을 나타낼 뿐이지 성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명을 받은 사람의 기는 같다. 기가 같으면 천성과 형체와 뼈대와 용모도 비슷하다’는 자신의 말과 배치되는 것으로 커다란 괴리가 있다. 후한을 대표하는 사상가라는 칭송을 받는 왕충으로서 벗어날 길이 없는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골상>편 외에서 즉 <제세>·<강서>·<자기> 등에서 골상을 언급하다 보니 이로 인해 통일되지 않은 체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논형》 84편의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서로 비슷한 사상과 내용이 같은 편이나 장에 배속되지 않은 곳이 제법 많은 것으로 보아 각 장과 편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편장의 차례는 글을 쓴 순서일 것이다. 따

42) 《論衡》 <齊世>，“夫稟氣等，則懷性均，懷性均，則形體同，形體同，則醜好齊，醜好齊，則天壽適。”

43) 《論衡》 <講瑞>，“聖人賢者亦有知而絕殊，骨無異者，聖賢鳥獸亦有仁善廉清，體無奇者，世或有富貴不聖，身有骨爲富貴表，不爲聖賢驗。”

라서 <골상>편은 앞에 편집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세 편은 모두 중후반에 배치되었으니 당연히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骨法과 관련한 중요한 글이 <齊世>편에 단문으로 보인다. “얼굴에는 다섯 가지 기색이 나타난다(面有五色).”는 글인데, 이 내용의 앞뒤에는 키와 가슴둘레 혹은 백세의 수명을 언급할 뿐 인용문과 연결될 만한 내용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오행과 연관된 용어로서의五常과 五穀 및 五色이다. 안타깝게 편린으로만 나타났으나 오행의 색깔을 얼굴색에 적용하여 相學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다. 다섯 기색이라는 오행과 관련된 찰색은 王充과 동시대를 살던 王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된다.⁴⁴⁾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의 운명이 골상 혹은 관상에 나타난다고 언급한 서적은 王充의 《論衡》이 최초이다. 또한 골상과 성격까지 연계한 이러한 관점은 이후 현대까지 相人術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오늘날 相學에 이르기까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골상>편에 보이는 주체성 확보

고대 상인술의 연원은 대변혁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으며, 思想史的으로 자연(상제)으로부터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의 산물인 바,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첫째, 공자 이래 맹자가 천을 명과 연계시키고 인간의 심성에 내재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품성을 파악하는 ‘知人’의 방법과 둘째, 타고난 인간 자체의 외면적 특징에 근거하여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는 ‘相人’의 방법이다. 순자가 상인술을 비판한 이유도 단순히 외면적 특징에 근거해서는 자연(천명)에서 주어진 조건을 극복하

44) 《潛夫論》 <相列>, “故師曠曰, 赤色不壽.”; 《潛夫論》 <敘錄>, “五行八卦, 陰陽所生, 稟氣薄厚, 以著其形.”; 《神相全編》, “大凡觀人之相貌, 先觀骨格, 次看五行. ……木形人要青, 火形人要紅, 金形人要白, 水形人要黑, 土形人要黃, 此人之氣色也.”

지 못하기에 완전한 주체성의 확보라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사람의 생김새는 자연일 뿐이며 현실적 인간의 능력이나 품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맹자는 도덕과 하늘의 연계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中庸》에 보이는 “참된 것은 하늘의 도이고 참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는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離婁上>에서는 “성(誠)은 하늘의 도이고, 성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라 하였다. “맹자는 특히 천을 인간의 심성(心性)에 내재화시킴으로써天和 사람이 상통할 수 있다.”⁴⁶⁾고 보았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 수 있고 그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는 것이다. 이로써 맹자는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이나 가치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고 천명하였다. 내 본성에 들어있는 天理를 드러낸다는 것, 즉 四端을 확충하여 도달할 수 있는 仁義禮智가 유교의 天人合一이다. 따라서 수양을 하면 천일합일이 된다는 것이다.

순자는 맹자의 天人合一을 부정하고 天人相分을 주장하며 자연으로부터 주어졌던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주체성을 찾았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상인술을 비판하는 <非相>을 논술한 것이다. 한대에 들어 동중서(董仲舒)도 맹자의 천인합일을 부정하면서, 의미를 왜곡시켜 同類相同이라는 天人感應論⁴⁷⁾을 주장하였다.

이에 王充은 동중서의 천인감응을 부정하고 세 가지 측면의 ‘天道自然’을 주장하였다. 첫째 天은 기로 형성되었으므로 물질적 성격을 지니며 의지가 없다. 둘째 천지만물은 氣나 元氣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은 원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정밀한 원기의 정수를 부여받았다. 셋째 사람의 명운은 부모

45) 주미강 외, 앞의 논문, 246쪽.

46) 윤무학, <맹자의 윤리학적 범주와 목가>, 《동양철학연구》 제46집, 2006, 60쪽.

47) 《春秋繁露》 <王道通三>, “人之受命於天也, 取仁於天而仁也.……唯人道爲可以參天.”; 《春秋繁露》 <人副天數>, “天以終歲之數, 成人之身, 故小節三百六十六, 副日數也, 大節十二分, 副月數也, 內有五藏, 副五行數也, 外有四肢, 副四時數也.”

가 합일할 때 하늘의 별 기운이 숨어들어서 골상에 드러난다는 自然命定論을 제시한 것이다.

왕충의 이러한 천도자연은 天에 대한 의존성을 인간의 主體性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만, 이중 세 번째의 '사람의 명운은 부모가 합일할 때 하늘의 별 기운이 숨어들어서 골상에 드러난다는 自然命定論'으로 인해 결국 명정론으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명정론과 골상을 연계시킴으로써 자신의 핵심이론을 완성시켰다.

각종 미신 금기와 술수에 대한 비판을 질타했던 왕충의 명정론은 일견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골상>편에서의 관점은 자연속성 자체가 아닌 인간에 내재된 골상을 통해 인간의 주체성과 연계시킨 것이다. 모순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다른 술수와는 차별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체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춘추전국이라는 대변혁의 시기에 天으로부터 인간의 主體性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相人術이 이용되었다. 고대에는 절대적인 上帝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에 상제가 성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여겼으며 그러한 성인은 특별한 相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처음에는 성인들의 相에 대한 특징만 기록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인 춘추 중기에 외모의 특징과 운명을 연결하는 기록도 보인다.

왕충은 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사람은 그 기운의 길흉과 후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命定論의 증거들이 골상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骨相>편에서 전문적으로 상인술을 논하면서 지나치게 의미를 확장한 명정론을 내세운 것은 그가 생활하던 당시의 특정한 여러 조건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가 벼슬에서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궁핍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한의 분위기를 이어받은 후한의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운명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데에서 극단적인 命定論을 탄생시켰으며, 이것을 相人術에 도입하면서 지나치게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聖人)의 相은 특이하다면서도 다시 聖賢의 骨相은 일반인과 비슷하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떨쳐낼 수 없는 과오도 범했다. 이처럼 엇갈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골상만을 다룬 <골상>편은 비교적 초기에 기록되었지만 골상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講瑞>편 등은 중후기에 저술된 것으로 보여 시기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귀빈천이 골상에 나타난다는 등의 많은 이론들은 본문 중에서 확인했듯이 전한 또는 춘추전국시기에 이미 보이는 만큼, 대체적으로 이전 시대의 기록이나 전해오던 소문을 왕충이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한 증거들로, 전한 이전에 이미 姑布子卿, 唐舉와 許負이라는 전문 관상가의 상인술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소실되었지만 《漢書》에 相人 24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골상>편의 기록이 이전 시기의 기록들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추측할 수 있다.

맹자는 심성에 내재된 도덕적인 본성(天人合一)에서, 순자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을 극복해야 한다(天人相分)는 명제에서 주체성을 찾았다. 王充도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천도자연을 주장하여 당시 유행하고 있던 동중서의 천인감응을 반대하면서 天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命은 天에서 부여받는다는 명정론을 주장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다. 결국 자신이 확보한 인간의 주체성을 天에 의지하는 主宰性으로 환원시키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명정론과 결부되어 의미가 퇴색된긴 했지만, 무조건 天에 의지하지 않고 骨相의 분석을 통해 사람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면에서 다른 술수와 다르며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컨대, 사람의 운명을 골상에 연계시키는 명정론을 언급하였다는 점과 골상이 성격이나 五行과도 연계된다고 주장한 이론 등을 최초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서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초보적이지만 골상을 성격이나 오행과도 연계시켰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論語》, 《左傳》, 《墨子》, 《國語》, 《逸周書》, 《竹書紀年》, 《孟子》, 《莊子》, 《荀子》, 《韓非子》, 《黃帝內經》, 《春秋繁露》, 《史記》, 《漢書》, 《東觀漢記》, 《論衡》, 《潛夫論》, 《白虎通義》, 《後漢書》, 《韓詩外傳》, 《三國志》, 《人物志》, 《神相全編》, 《西遊記》.

김철운, <荀子の 觀相 비판과 道德實踐 근거>, 《퇴계학보》 제138집, 2015.

윤무학, <맹자의 윤리학적 범주와 목가>, 《동양철학연구》 제46집, 2006.

주미강·윤무학, <순자의 상인술 비판과 사례분석>, 《양명학》 제47집, 2017.

윤훈근, <상학의 도교수련적 접근>,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汝企和, <《論衡·骨相篇》與《潛夫論·相列》解釋>,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報)》 第207期, 2008.

李詠達, <王充與王府的天人關係論解釋>, 《宗教哲學》 第74期, 2015.

林瀟雨, <荀子非相篇名及成篇時間研究>, 《赤峯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37期, 2016.

趙佳蘭, <論《史記》的相人情節及司馬遷的相術思想>, 《渭南師範學院學報》 第30期, 2015.

孟姣姣, <先秦兩漢相人文化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李富祥, <王充論衡的命理學思想新探>,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Abstract >

The Origin of Physiognomy and <Phrenology(骨相)> of Wang Chong

Joo, Mikang · Kim, Gyeseong

Physiognomy(相學) in the pre-Qin period(先秦時期) was settled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after it had gone through a transitional process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era of drastic changes of Chun qiu zhan guo period(春秋戰國時期), god-centered independence began to change gradually to human-centered one, and as shamanism(巫) and historians(史) spread into common people, the tendency of conjury(術數) sprang up among peop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theory of heaven and humans response(天人感應說) of Han dynasty(漢代) and so on, conjury study(術數學) couldn't but be developed in Han dynasty when philosophy shifted from human-centeredness to the connection with gods. Wang Chung(王充) made 'phrenological(骨相)' as the proof of human independence and established physiognomy(相學) for the first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determinism(命定論), and it was meaningful in that phrenology(骨相學) was connected to personality or the Five Elements(五行) even though it was elementary.

Key Words: skill of physiognomy, physiognomy, phrenology, Wang Chong, determinis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0	2018. 8. 16	2018. 8. 23	2018. 9. 30

